

#### 4. 조계산지역의 불전간행과 강회

조선 후기의 불교에서 모든 승려들은 사실상 선종 계통인 서산문하로 그 범손이 계승되었다. 이제 그 범백 자체는 선종이었으나 시대적 조류인 유교의 학문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전통적인 선을 바탕으로 한 교학적 전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교의 서당교육과 궤를 비슷하게 하는 강원(講院)교육이 체계를 잡아가고 외전(外典)인 유학에도 밝으면서 내전교과(內典敎課)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선종 계통 대강백(大講伯)들이 많이 배출되어 교과(私記)가 저술되어 교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명칭에 부합하는 선승들의 문집도 많이 출간되어 수행자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으며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원류를 기록한 *불조원류(佛祖源流)*란 족보까지도 편찬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유교적 족보사회에서 불교 내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사자전승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불교계의 대응방식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전교학은 물론 외전인 유학까지도 수학함으로써 선사상에 입각한 교학이 자연스럽게 개발되었다. 이것은 전통강원의 이력과정 가운데 대부분이 선학에 편향된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형성과정도 선학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목의 정립에 이어 이것들에 대한 사기가 저술되어 교과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교학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승려들은 어록(語錄)보다 문집(文集)이라는 명칭으로 저술을 간행하였다. 어록은 범어가 위주로 되어 시·송(頌) 등은 잡저(雜著)로 수록되어 있으나, 문집은 시·송을 비롯하여 서장(書狀)·서문(序文)·기(記)·발(跋)·소(疏)·권문(勸文)·잡문(雜文)·제문(祭文)·상량문(上樑文) 등의 잡저와 행장 등이 수록되어 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승려문집의 간행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지식인층의 대부분이 유학자로서 오언·칠언 등의 시문을 즐겼으므로, 그들과 교류하고 시류에 부합하여 포교 또는 신분유지상 서찰을 매개로 유학자들과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문이나 서장의 내용을 엄밀하게 검토해보면 은연중에 선사들의 진솔한 경계가 드러나고 있다. 불교를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선사의 위치를 굳게 지키며 불조(佛祖)의 신근(信根)·혜명(慧命)을 이으려는 선사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불교의 사상적 조류로 화엄경의 중시를 들 수 있다. 불교에서 화엄경 중시는 하나의 전통이었다. 이 시기에 와서 그 전통은 거의 모든 문중·승려들에게 아무런 이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편양언기(鞭羊彦機)와 부휴선수의 문중에서 특히 중시되고 있었다. 의심(義謹)은 화엄경의 동이(同異)를 연구한 뒤 음석(音釋)을 가하였으며, 같은 편양문화의 도안(道安)은 화엄종주라고 불릴 정도로 화엄경을 자주 설법하였다. 정혜(定慧)는 화엄에 통달하여 강설하는 데 당대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지안(志安)은 금산사에서 화엄법회를 열었는데 그때 모인 청중이 1,400명이나 되었다. 상월새봉도 선암사에서 화엄강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모였던 1,207명의 명단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정조 때의 의소(義沼)는 *화엄사기(華嚴私記)*를 지었고, 설파상언(雪坡尙彦)은 소실된 *팔십화엄(八十華嚴)* 간본을 새로 간행하였다. 이들은 조선시대 문예진흥기인 영·정조대에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유·불·도 3교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 시기 불교사조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수초(守初)를

비롯한 성충(性聰)·수연(秀演) 등이 그 방면의 선구자이고, 의소·응윤(應允)도 그러하다. 조선 중기 후반의 불교수행은 대개 선·교·염불 세 가지로 나뉜다. 이밖에 眞言集(眞言集)』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식이 성행하면서 밀교적 경향도 다시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향들을 이론적으로 회통시키는 데는 화엄의 도리가 필요하며, 실천으로는 선의 실수(實修)가 필요했던 것이다.

교단의 주류는 선종이었으나 휴정과 선수 이후로 그 법손들이 수선에만 전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학의 연구에 힘쓴 경향이 있는데, 간경·강학에 전념하는 고승들이 수없이 나왔다. 또 승려들은 고성염불로 정토에 왕생할 업을 닦았고, 때로는 진언을 외어 비밀법(秘密法)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승려사회 안에서는 이판승(理判僧)과 사판승(事判僧)이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승려의 수행도 선·교·염불의 3문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선방·강당·염불당을 갖추고 있었다. 참선과 염불하는 승려를 수좌(首座)라 하고 경을 공부하는 승려를 강사(講師)라고 불렀다. 이들 수좌와 강사는 가급적이면 시끄러움을 피하여 산중의 사암에 머물렀으며 사찰의 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불명예로 여겼다. 이에 따라 사찰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할 승려층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수도하는 수좌와 강사를 이판승이라 하고, 사찰의 제반업무를 맡아보는 주지 등의 승려를 사판승이라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조계산지역에는 송광사·선암사를 중심으로 고승들이 많이 주석하여 새로운 강회불교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사찰에서 강회를 하는 데 필요한 불전목판이 다수 개관되기에 이르렀다. 조계산지역에서 개관된 현전하는 간기가 있는 불전목판을 정리해보면 다음표와 같다.<sup>1)</sup>

조계산지역의 강회불교와 관련된 승려들은 부휴선수(1543~1615), 취미수초(1590~1668), 백암성충(1631~1700), 무용수연(1651~1719), 영해약탄(影海若坦, 1668~1754), 풍암세찰(1688~1790), 목암최눌(1717~1790)인데, 이들 가운데 직접 관련된 승려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암성충은 취미수초의 법제자로 1685년(숙종 11)부터 1690년까지 많은 경전을 간행하였다. 그 다음해인 1691년에는 선암사의 창과각에서 화엄대회를 개최하였다. 무용수연은 백암성충을 계

---

1) 朴相國, 『堅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1987; 李啓杓, 「仙巖寺沿革」, 『仙巖寺』,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2, 28쪽.

송광사의 유간기 불전목록

경 명	간행연도	소장처
보제존자삼종가(普濟尊者三種歌)	1435	성 암
인천안목(人天眼目)	1529	고려대
청량답순종심요법문(淸涼答順宗心要法門)	1531	고려대, 동대
대보부모은중경(大報父母恩重經)	1563	산기문고
몽산화상범어약록(夢山和尚法語略錄)	1577	고려대, 동대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1577	서울대
계초심학인문(戒初心學人文)	1577	개 인
선가귀감(禪家龜鑑)	1582	서울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583	개 인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	1590	연세대, 동대
예념미타도장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	1607	개 인
선가귀감	1607	성암, 연세대, 동대
원인론(原人論)	1607	개 인
묘법연화경	1607	동 대
운수단가사(雲水壇歌詞)	1607	만송문고, 동대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1608	개 인
몽산화상범어약록	1608	연세대, 동대
간화결의론(看話決議論)	1608	국립중앙도서관
계초심학인론(戒初心學人論)	1608	고려대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1608	국립중앙도서관, 산기문고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1608	성 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608	성대, 연세대, 고대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1608	서울대, 성암
고봉화상선요	1609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
능엄경(楞嚴經)	1609	개 인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1611	만송문고
묘법연화경	1615	서울대
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說預修十往生七經)	1618	성 암
금강반야과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1618	개 인
선가귀감	1618	고려대, 동대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120권본)	1635	성암, 고려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635	연세대, 동대
운수단가사	1636	개 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642	동 대
예수십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往生七齋儀纂要)	1647	동 대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1648	개 인
취미당집(翠微堂集)	1724	개 인
무용당유고(無用堂遺稿)	1724	계명대, 개인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1742	동 대
지장보살본원경	1791	만송문고, 고려대
천지팔양신주경(天地八陽神呪經)	1791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
묘법연화경	1799	동 대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1799	장서각

선암사와 유간기 불전목록

경 명	간행연도	소장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655	동국대
묘법연화경	1660	개 인
사분율취취대목초(四分律七聚大目抄)	1691	연세대, 동국대
침핑집(枕肱集)	1695	동국대
묘법연화경	1728	개 인

송광사·선암사 제외 순천지역 사찰목록

경 명	간행연도	개관사찰	소장처
십현담(十玄談)	1509	모후산(母後山) 대광사(大光社)	산기문고
대혜보각선사서	1511	모후산 대광사	성대, 고려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1514	모후산 대광사	성 대
선림보훈(禪林寶訓)	1525	모후산 대광사	국립중앙도서관
대혜보각선사서	1511	관치산(官治山) 천승사(天昇寺)	개 인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1528	대광산(大光山) 용문사(龍門寺)	만송문고
종경촬요(宗經撮要)	1531	조계산(曹溪山) 은적암(隱寂庵)	동 대
치문경훈(緇門警訓)	1664	흥국사(興國寺)	간송문고, 만송문고
묘법연화경	1664	영취산(靈鷲山) 흥왕사(興旺寺)	개 인

승하여 모여드는 많은 학도들을 위해서 선암사와 송광사 등으로 옮겨 강설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에 몰래 빠져나가 상백운암으로 가서 다시 선정을 닦았다. 뒤에 또 선암사와 송광사의 간청으로 그곳에 가서 강수하였다. 1688년에는 스승 성총을 다시 뵈고 화엄소초(華嚴疏鈔)를 배웠다. 이후로 그는 항시 성총을 모셨다. 1689년에 성총이 징광사에서 화엄연의거(華嚴演義鉅)·태명법수(大明法數)·淨土寶書 등의 불전을 간행할 때 도왔으며, 1691년 선암사에서 화엄회를 개설할 때도 성총을 수행하였다.

그는 백암성총의 강석을 물려받아 호남지역 불교계의 대중장이 되었다. 1719년 송광사에 머물 때 제자 약탄 등이 영·호남의 여러 사찰의 고승 300여 명을 모아 화엄·염송의 대회를 베풀었을 때 수연은 대회주로 모셔졌다. 그해 10월 미타삼존상을 개조하고 염불에 전념하다가 입적하였다. 무용수연 문하에는 적사(嫡嗣) 영해약탄을 비롯하여 함영상징(涵影尙澄)·보응위정(普應偉鼎)·완화처해(玩華處海) 등 제자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약탄은 홍경, 위정은 선관, 처해는 염불이 각각 뛰어났다. 이것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새로운 가풍이던 수선·강경·염불의 선가 삼문수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연은 시문에 능하여 이광좌 등의 명사, 유학자들과 널리 교류하였다.<sup>2)</sup>

영해약탄은 1719년 봄에 송광사의 스승인 무용수연을 위하여 화엄대회를 개최하였고, 1722년(경종 22)에는 송광사 불조전의 53불의 정화불사를 행하였다. 1750년(영조 26) 봄 수제자 풍암세찰의 청에 따라 송광사에서 화엄대회를 개최하고 회주가 되었다. 약탄의 문하에는 풍암세찰을 비롯하여 연화승신(蓮華崇信)·홍파적우(洪波積友)·서유축한(西遊竺閑) 등 11명이

28) 崔柄憲, 「조선후기 浮休善修系와 松廣寺－普照法統說·太古法統說 葛藤의 한 사례－」, 同大史學1, 同德女大 人文大 國史學科, 1995, 143쪽.

있다. 1759년 봄에 수제자 목암최눌 등의 간청으로 송광사에서 베푼 화엄대회의 강주가 되었다.

세찰의 문하에는 이른바 16현이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유악책현(維岳策賢)·목암최눌·응암낭윤·제운해징(霽雲海澄)·벽담행인(碧潭幸仁) 5명은 그 문도가 혁혁하여 최근까지 송광사를 중심으로 많은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 그뒤 송광사의 대덕들은 거의 다 풍암세찰의 법손(法孫)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목암최눌은 풍암세찰의 강석을 이어받아 많은 문도를 지도하였다. 특히 그는 화엄학에 일가를 이루어 화엄종 승려로 손꼽히고 있다.

이상으로 조선 후기 순천지역의 불교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왜란 때에는 송광사의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의승수군으로서 활동하여, 이순신의 수군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전란이 끝난 직후에도 초토화되어버린 불사를 재건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다수의 불화가 제작되어 불교신앙의 흐름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불전을 간행하고 강회를 개최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불교가 교학화되는 경향을 갖게 하였다.

#### 참고자료

- 亂中日記』.  
李忠武公全書』.  
海珠錄』.  
曹溪山松廣社史庫』.  
有一, 『蓮潭大師林下錄』3, 韓國佛教全書』10.  
無用秀演, 『曹溪山 仙巖寺 迎聖樓記』, 韓國佛教全書』9.  
李載昌, 『朝鮮時代 僧侶 甲契의 研究』, 佛教學報』13, 1976.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1987.  
洪潤植, 『朝鮮後期 佛教의 信仰儀禮와 民衆佛教』, 韓國佛教史의 研究』, 敎文社, 1988.  
眞玉 편저, 『통국사』, 1989.  
徐致祥·金純一, 『松廣寺 第五重創工事に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6卷 1號, 1990.  
梁銀容, 『全羅左水營의 義僧水軍에 관한 연구』,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 경서원, 1992.  
李啓杓, 『仙巖寺 沿革』, 『仙巖寺』, 南道佛教文化研究會, 1992.  
李啓杓, 『仙巖寺의 僧侶』, 『仙巖寺』, 南道佛教文化研究會, 1992.  
金廷禧, 『孝·肅宗代의 佛教繪畫』, 講座 美術史』6, 1994.  
安貴淑,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연구(上)』, 『미술사연구』 제8호, 1994.  
崔柄憲, 『조선후기 浮休善修系와 松廣寺-普照法統說·太古法統說 葛藤의 한 사례』, 『同大史學』1, 1995.  
金相鉉, 『義僧將 慈雲·玉洞 二禪師考』, 『천라좌수영과 임진왜란 義僧水軍의 활동』(全羅左水營 再照明 學術大會 발표요지문), 麗川市, 1996.  
梁銀容, 『홍국사 所藏資料로 본 義僧水軍』, 『천라좌수영과 임진왜란 義僧水軍의 활동』(全羅左水營 再照明 學術大會 발표요지문), 麗川市, 1996.  
김정희, 『한국의 명부신앙』,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김정희, 『조선시대 명부전 불화의 의의』,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張姬正, 『18·19세기 曹溪山地域 佛畫研究』,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6.

29) 최병현, 위의 논문, 143~145쪽.